

외국인 이주자의 기본활동 공간에서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최병두* · 박은경**

요약 외국인 이주자들은 경제의 세계화와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같은 거시적 배경 하에서 국제이주를 행하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주요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입장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은 자신의 이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 즉 기본활동 공간에서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매우 민감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 논문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유형별로 이러한 기본활동 공간(즉 결혼이주자의 가정, 단순 및 전문직 이주노동자의 직장,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특히 만족)하는가,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적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은 의사소통, 집안일 처리, 가족생활 문화 적응,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는 '보통'(5점 척도값, 3)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자녀 양육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은 희망직종, 적정한 업무량, 충분한 임금, 직장 유지 등의 활동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실제 장시간 노동이 많았고, 이직 욕구도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전문직 이주자의 직장 생활은 시설의 편리성, 복지제도, 업무시간 및 업무량, 임금, 업무수행능력 등의 사항에서 '대체로 만족'(3.5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사회적 관계도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은 대학 내 행정기관 및 편의시설, 장학 및 지원제도, 수업 및 학업, 한국어 교육지원, 기숙사 수용, 교우관계 등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의사소통과 외국인 배려 부족 등을 어려움 문제로 지적했고, 또한 일상적으로나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한국인보다 본국인 친구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외국인 이주자, 기본활동 공간, 외국인 이주자의 가정·직장·학교에서의 생활,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

* 대구대학교 교수, 지리학, bdchoi@daegu.ac.kr(교신저자)

** 대구 경일중학교 교사, 지리학, shine0924@paran.com

1. 서론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경을 가로 질러 이주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이주를 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결혼이주자들은 이주한 국가의 생소한 지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영구 이주를 결정했을 것이며, 이주노동자(단순 노동자뿐만 전문직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직장생활을 찾아 보다 많은 임금을 얻거나 기술(생산 또는 경영 등)을 익힐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역시 새로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학업이나 연구의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몇 년간 이국 땅에 체류하고자 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일차적 목적을 가지고 국제 이주를 하여 새로운 지역에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일차적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기본활동 공간'(basic activity space)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소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해 매우 민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러한 일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소들, 즉 결혼 이주자에게 있어 가정,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직장, 외국인 유학생에게 있어 학교라는 장소들과 이 장소들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 대해 가장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활동 공간은 해당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만족감을 얻고자 하며, 이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기본활동 공간은 이들이 국내 지역사회에 이주하여 생활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우선적인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생활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이나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는 상당 정도 제시되었지만, 이에 관한 보다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

한 기본활동 공간에서의 일상생활 및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는 관련된 세부 주제들, 예로 이러한 장소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우선적으로 바탕을 둔 개인적 정체성의 재구성,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서의 행동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활동이나 상호행동(네트워크)들에 관한 연구에 바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4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 즉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기본활동 공간(즉 가정, 직장, 학교)에서의 일상생활(만족감)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 연구를 위한 분석틀과 연구 동향을 간략히 제시한 후, 각 절별로 4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기본생활 공간에서 영위하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고찰·서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는 2008년 10월에서 2009년 2월 사이 국내 6개 지역(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서 시행된 것이다.

2. 연구 동향과 연구의 틀

1) 연구 동향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은 크게 4가지, 즉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분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각 유형별로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누적되어 왔다. 외국인 이주자들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개별 유형별 적응 특성과 정책 지원 방안 등에 관한 고찰이 주를 이루었다면,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개별 유형별 세부 주제들과 영역으로 구분되어, 외국인 이주자들의 특성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한편으로는 보다 통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

지만, 또한 동시에 각 학문별 전문성을 고려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병두, 2011; 최병두·신혜란, 2011).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별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특히 기본생활 공간에서의 경험과 만족도 및 이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기본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이루어지는 경험과 관계들, 즉 가정생활, 직장생활, 대학생활,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서의 주거생활, 소비생활, 여가생활, 지리적 이동 등을 다룬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

우선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2000년대 이후 국내 결혼이주자들이 급증하고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들에 관한 연구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연구 분야도 출신국가, 가정생활, 지역사회 적응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예로, 1990년대의 연구는 대체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과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성지혜, 1996; 강해순, 1999a, b; 강유진, 1999). 이 중 성지혜의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생애사적 구술방법을 통해 한국남성과 조선족 여성의 결혼 과정과 문제를 분석하였는데, 이들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가부장적인 권력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연구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양철호 외, 2003; 이해경, 2005), 결혼이주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는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보건복지부, 2005; 설동훈·윤홍식, 2005; 설동훈 외 2006).

2000년대 이후 결혼이주자에 관한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결혼에서의 문제점과 원인, 부부 갈등, 결혼생활, 결혼이주자의 적응과정,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발전하였다. 이 중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과 관련한 연구로는 결혼생활, 부부관계,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결혼 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로는 가족생활, 일상생활, 경제생

활, 이주여성의 삶과 결혼생활 적응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설동훈 외 2006; 최금해, 2008, 구차순, 2007; 박정숙 외, 2007; 정기선 외, 2007; 이정은, 2010; 김기홍, 2011). 결혼이주자들의 부부관계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한국 남성들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폭력, 국제결혼의 상품화 등과 관련한 연구가 있다(이금연, 2003; 한국염, 2006). 또한 결혼이주자들의 부부관계를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으로 고찰하기도 하였다(홍기혜, 2000; 이해경, 2005; 김민정 외, 2006; 김오남, 2006). 결혼이주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조사 결과 국제결혼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한국가정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김민정 외 2006).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이진숙, 2007), 국제결혼 자녀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서현·이승은, 2007) 등이 있다. 결혼이주자들이 겪는 의사소통 문제와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통하여 사례를 설명하고,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보라, 2008). 이주여성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이를 통해서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설동훈 외, 2005),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설동훈 외, 2006)에서는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들 가운데 특히 시어미니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정순돌, 이현주(2010), 정순돌 외(2010) 등을 들 수 있다.

(2)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양도 상당히 많으며,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결과물들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면서 이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노동력

활용, 경제적 효과,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적응 분야에 대한 조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점차 정책분야와 외국인 복지, 인권, 지원 단체 등으로 연구 주제가 세분되고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과 일상생활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직무만족, 노사관계, 고용허가제, 사회적 연결성 등의 관한 연구가 많이 등장하였다. 2003년에 이후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어 고용정책, 지원단체, 거주공간, 한국어 교육, 여가, 건강 등에 대한 연구로 연구 주제를 확대하였다(이정환·이성용, 2007). 이주 노동자의 연구는 이처럼 초기에는 경제적 효과 및 실태 파악 연구가 주를 이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 분야가 세분화, 다양화 되어 여가, 건강 등의 복지 영역까지 관심 분야가 늘어났다.

이주 노동자의 직장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로는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가 있다(이육정, 1994; 곽재호, 2006).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이주 노동자의 이주특성과 이주과정, 노사관계, 근로조건과 직장경험, 지원단체 등을 포괄한 연구가 나타났다(석현호, 1998; 이주연 외, 2011).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밝혀내고자 한 연구도 있다(곽재호, 2006).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참여관찰적인 현지조사를 수행한 연구도 나타난다(이육정, 1994). 한국여성정책개발원(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근로 실태, 기업경영성과, 근로 환경 등과 직무만족도와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박신혁·전우영, 1998; 국가인권위원회, 2002; 박달순, 2003; 정기선, 2003; 고희준, 2005, 강남모, 2008).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교하여 각각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한다(박달순, 2003).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장 적응양상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해 고찰하였다(정기선, 2003).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및 근로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 나타났다(강남모, 2008). 다른 한편 미등록(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도 그 동안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최근 연구로 김민정(2011) 등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연구로는 노사관계, 동료관계 등이 주요 연구 주제로 나타난다(이정환, 2005). 사회적 관계를 이주노동자 고용 회사의 노무관리, 노사관계 실태를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의 각각 입장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로서 친구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 모국인과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이정환, 2005). 이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연구가 등장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이주노동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 이주노동자와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들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3) 전문직 이주자의 직장생활 연구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에 관한 연구 중 전문직 이주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이주자의 국내 유입이 대체로 저숙련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숙련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 분야가 진행되었으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이주 및 적응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의 연구 분야가 점차 세분화, 다양화되면서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전문직 이주자들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전문직 이주자들에 관한 연구 분야는 이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체류자격 유형 회화지도(E-2)에 해당하는 원어민 교사 등을 포함하는 분야이다. 원어민 교사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교수학습측면에서 효과성을 다루는 연구가 다수이며(김임득, 2000; 최병천, 2000; 김선봉, 2006), 원어민 교사의 직무환경 및 직무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나타난다(김선정,

2003; 서영숙·서지영, 2005; 이미경, 2007; 노수인, 2009). 원어민 교사의 직무 환경 및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어민 교사의 한국사회 적응 및 직무 만족도 향상 요인을 고찰하고 있다.

그 동안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학계의 관심 밖에 있었다. 따라서 학계에서의 다양한 연구보다는 정부주도의 정책분야에서의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국외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현황조사와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김남희 외, 2005).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활용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 고급인력의 한국 입국후 적응과정과 어려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김남희, 2004).

(4)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이들의 유입이 급증하게 된 2000년 이후 다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했고, 연구 내용도 다른 외국인 이주자 유형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유학생 현황, 유치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주도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연구방식은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국내대학 사례조사, 해외사례 빈치마킹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박태호, 2000; 노종희 외 2003; 박응수 외, 2004, 이명재, 2006; 김지훈·이민경, 2011).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지원에 관한 연구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비교육 연구,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의 연구가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로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업,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 문제로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허춘영 외, 1999; 이익수·지봉구, 2006; 황해연, 2007). 또한 중국유학생들의 학교생활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위해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도 있다(최금해, 2008).

대학 생활 문화 및 문화적응과 관련한 연구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을 규명하였다(임춘희, 2009). 서울지역 5개 대학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적응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을 규명한 연구도 나타난다(엄혜경, 2003). 국적별로는 국내에 유입된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다(허춘영 외, 1999; 황해연, 2007; 최금해, 2008; 하정희,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개별 유형별 지역사회, 특히 기본생활공간에서의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점차 세분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 전체를 고려한 비교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체 외국인 이주자들의 기본활동공간에서의 적응 특성을 고려하면서, 각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적응양상을 함께 비교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틀과 자료 개관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제적 이주와 새로운 지역사회에의 정착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일차적 목적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외국인 이주자들이 왜 국제 이주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특히 구조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구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 과정과 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지역불균등발전 그리고/또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구조적 또는 거시적 배경하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 이주자들이 급속하게 증가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반면 보다 미시적, 행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을 개별 행위자로 인식하고 이들이 주어진 조건들 하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제고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제적 이주를 결행한다고 서술한다(최병두, 2011).

이러한 구조적/행태적, 거시적/미시적 관점은 물론 이원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다른 관점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러한 관점들을 결합한 방법론(예로 구조화 이론)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본활동 공간에 우선적으로 관심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미시적, 행태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출발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기본활동 공간에서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는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사회공간을 다규모적 배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자 한다. 즉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기본활동 공간은 각 유형별로 가족생활 공간, 직장생활 공간, 학교생활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이 공간들과 더불어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주거공간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활동 공간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신들이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국경을 넘어 새로운 지역사회로 이주하여 낯선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기본활동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및 사회적 관계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만족/불만족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물론 이 장소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겪게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는 단순히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이 장소를 함께 구성하고 활동하는 관련 내국인들(즉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직장 동료 및 관리자, 또는 학교 친구 및 교직원 등)에게 반작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활동 공간은 중층적으로 형성되는 ‘다문화 공간’의 다규모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문화공간에 관한 연구에서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러한 기본활동 공간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적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전제되는 다양한 생활공간에서의 활동(이른바 ‘존재기본기능’)도 수행한다. 예로 생존과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주거활동을 포함하여, 그 외 구매활동, 여가생활, 이웃사회 활동, 역내 친지관계, 공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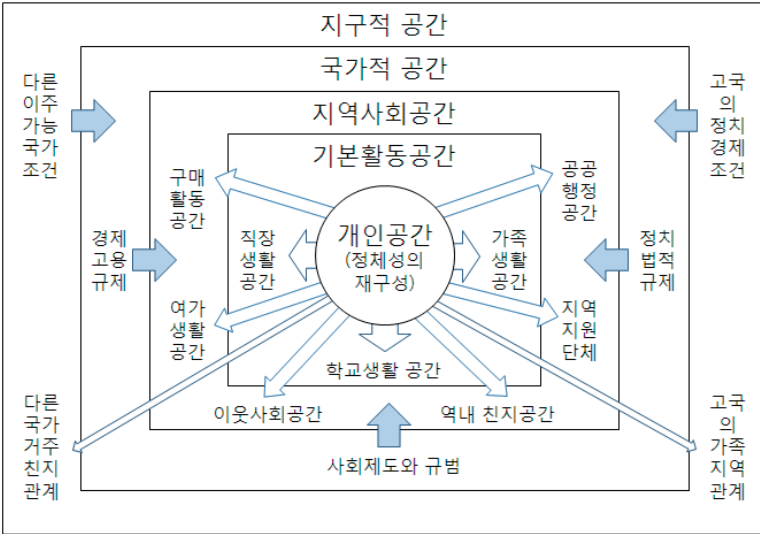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 이주자의 기본활동 공간의 다규모적 배경

자료: 최병두, 2012.

정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예로 자녀 교육, 병원 등), 그 외 지역 내 지원 단체들(종교단체 포함)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대체로 지역사회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기본활동 공간에서의 일상생활에 다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기본활동 공간에서의 행동은 이주한 국가의 정부에서 부여하는 정치적 조건(예로 체류기간), 경제적 규제(예로 고용조건),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제도나 규범들로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체류생활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것은 이주 목적의 실현이며, 그외 활동에서 자신의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재구성)하는 활동은 흔히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본활동 공간에서 이들의 태도(만족도) 및 활동방식은 특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예로, 외국인 이주자들은 자신의 이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직장, 가정, 학교 등의 기본활동 공간에 참여하지만, 이 공간은

규율을 전제로 한 억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아내고 가식적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최병두, 2009). 외국인 이주자들이 기본활동 공간에서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서 드러내는 이러한 행태적 특이성은 물론 한편으로 이들의 국적(인종)이나 특성(단순이주자/전문직 이주자, 연령 등)에 따라 다소 다를 것이며, 또한 관련된 행동의 상대방이 보여주는 포용/배제의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정치적 규제 정도, 사회문화적 조건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기본활동 공간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행태는 중층적 조건들과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나 이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결코 수동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이주자들은 기본활동 공간이나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 개인적 공간 경험양식이나 즉 장소적 정체성에 혼돈에 빠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때로 가족들과의 갈등관계를 보이거나 자녀 양육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며,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일탈된 행동을 보이거나 심지어 미등록(불법)이주자들처럼 주어진 법적 조건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기본활동 공간에서 수행하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행동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형성이나 사회공간적 조건들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4가지 유형, 즉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기본생활 공간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해 느끼는 만족도의 정도와 이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문항들을 설정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기본활동 공간에서 영위하는 일상생활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들에 관한 이주자 유형별 분석은 다음 절들에서

고찰하기로 하고, 우선 기본활동 공간에 대한 전체 만족도를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기본활동 공간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 총 응답자 1,353명 가운데 '만족' 및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이 각각 44.1%, 13.8%로, 매우 불만족 0.8%, 불만족 5.6%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들이 기본생활 공간에서 실제 만족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본국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만족할만 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자신의 이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기본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다소 가식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활동 공간에서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외국인 이주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이주자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반면, 결혼이주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으며, 의외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비슷한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지역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광주지역 이주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경기지역 이주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자가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고, 입국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정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특히 2007년 입국한 결혼 이주자가 매우 만족에 대해서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는 직장생활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 비슷하지만 경북지역에서 '불만족'에 응답한 이주 노동자가 타 지역보다 높

표 1. 외국인 이주자의 기본활동 공간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합계	5점척도
전체	11(0.8)	76(5.6)	464(34.3)	597(44.1)	187(13.8)	18(1.3)	1,353(100)	3.65
결혼이주자	8(2.0)	24(6.1)	164(41.7)	136(34.6)	51(13.0)	10(2.5)	393(100)	3.52
이주노동자	2(0.6)	14(4.0)	138(39.9)	147(42.5)	41(11.8)	4(1.2)	346(100)	3.62
전문직이주자	0(0.0)	12(4.7)	45(17.6)	147(57.4)	50(19.5)	2(0.8)	256(100)	3.93
외국인유학생	1(0.3)	26(7.3)	117(32.7)	167(46.6)	45(12.6)	2(0.6)	358(100)	3.64

은 경향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스리랑카인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만족' 및 '매우 만족' 응답 비율 57.1%로 다른 국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른 국적의 이주 노동자는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대한 응답이 대체로 10% 정도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비해, 스리랑카의 이주노동자는 1.6%만이 불만족에 응답하였다. 이주 노동자의 업종별 직장생활 만족도는 화학물질제품업에 종사하는 이주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속·비금속가공업에 종사하는 이주자는 타 업종에 비해 낮게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직 이주자들의 직장 생활의 전반적 만족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높지만, 그 중 불만족에 관한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꼽아보면 지역별로는 대구(10.9%), 국적별로는 중국(17.4%), 비자유형별로는 기업투자(D-8), 취업업종으로는 디자인 개발직(10.0%)이 해당한다. 유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대구, 광주의 대도시에서 유학생이 경기, 경북, 전남의 소도시 유학생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도시에서의 생활이 더욱 편리하게 인식한 결과로 추정된다. 국적별로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중국의 경우 '다소 만족'에서 다른 선진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서 38.8%로 낮게 나타난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과 사회적 관계

1) 결혼이주자의 가정에서의 생활

결혼이주자들이 국내에 이주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가정(공간)이다.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은 기본적으로 이주자 개인의 생활이 아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 예로 의사소통, 집안일 처리, 자녀 양육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정생활은 본국과 다른 가

족 문화, 생활양식, 가치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결혼이주자의 생활 만족도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이주자들의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활동들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적응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자녀 양육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응답을 보였지만, 가족생활문화 자체에 대한 적응이나 집안일 처리, 의사소통 적응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표 2-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순형(2007)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에서 한국 문화 및 예절, 친족관계, 자녀양육 등이 어렵다고 한 점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¹

결혼이주자들의 가정생활 만족 및 적응에 관한 항목들을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시켜 교차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이주 후 기간이 길수록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6년과 2005년 사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문조사 시기(2009)을 고려하면 대체로 4~5년이 지나면서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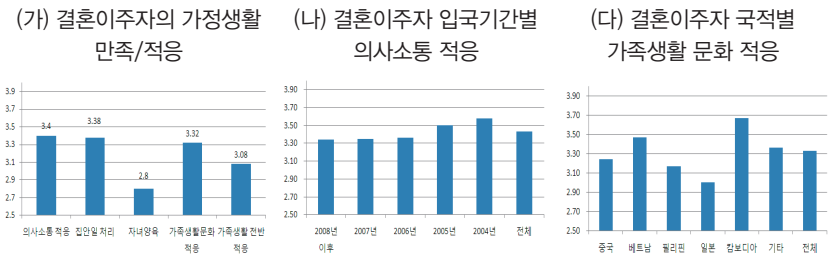


그림 2.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에 관한 만족(적응) 정도(5점 척도값)

1 결혼이주자의 만족 및 적응에 관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신문이나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서 흔히 보여주는 불만족 또는 부적응의 사례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 등에 의하면, 흔히 결혼이주자들이 이주 후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특정 사례들이 결혼이주자 전체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나 심층면접 결과와 같이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례들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가족생활의 문화적 적응 정도를 결혼이주자의 국적 별로 보면, 캄보디아 및 베트남 출신 이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적응도를 보였으며, 일본 국적의 결혼이주자가 가장 낮은 적응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 만족 또는 적응 정도는 실제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즉 결혼이주자들은 대체로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으나, 자녀의 양육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자녀 양육에 대해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은 결혼이주 여성이 언어와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한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 시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시누이가 있는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생각하는게 굉장히 젊다. 그래서 얘기도 통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참 좋다. 지금 일하는 회사도 시누가 소개시켜 준거다. 휴가 때 같이 몽골 가서 몇 일 보내고 왔다.” (사례 1_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 - 몽골, 여 1973년생, 경북, 화장품판매).

“만족스러운 편이다. 남편도 잘해주고 아이도 잘 크고,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다. 아이 교육문제가 제일 걱정된다. 지금까지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앞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사례 2_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 - 중국, 여 1965년생, 경북, 한글방문지도사)

결혼이주자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문제점 또는 어려움은 주로 배우자와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 만족 및 적응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배우자 다음으로 본국

표 2. 결혼이주자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장 먼저 상의하는 대상

		배우자	시댁 가족	본국 가족	본국 친구	한국인 친구	지원 기관	기타	무응답	전체 (명)
전체 (%)		221 (56.2)	24 (6.1)	41 (10.4)	44 (11.2)	17 (4.3)	22 (5.6)	15 (3.8)	9 (2.3)	393 (100.0)
입국 연도	2008년 이후	48.2	3.5	11.8	14.1	2.4	10.6	4.7	4.7	85
	2007년	49.2	3.4	20.3	10.2	0.0	10.2	5.1	1.7	59
	2006년	66.1	8.1	3.2	11.3	8.1	1.6	0.0	1.6	62
	2005년	72.2	5.6	2.8	11.1	0.0	5.6	2.8	0.0	36
	2004년	60.0	9.1	8.2	10.9	3.6	2.7	4.5	0.9	110

가족이나 본국 친구, 지원기관 순으로 나타났다.² 지역별로는 모두 ‘배우자’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 순으로 서울은 ‘본국 가족’을, 전남은 ‘시댁 가족’을 응답한 점이 특이했다. 입국연도 별로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결혼 초기에는 지원 기관과 상담을 하였으나, 입국 연도가 오래 될수록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낮아졌다. 또, 설문응답자 중 이주한지 2년 이하의 초등학교정도의 학력을 가진 베트남 결혼이주자 집단의 경우 지원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주 초기에는 본국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하는 비율이 높지만, 점차 시간이 경과하면서 배우자와 상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

2) 결혼이주자의 가정에서의 사회적 관계

결혼이주자가 가정에서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이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2 이순형(2007)의 연구에서도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성들이 도움을 얻는 상대는 남편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에 사는 본국 친구(24.5%), 본국의 친정부모 및 가족(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웃(1.3%)이나 시부모(2.6%) 및 시댁식구(2.0%)에게 도움을 얻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표 3. 배우자의 직업

		농어업	단순 생산직	단순 사무직	전문직	판매 유통직	서비 스직	공무원	학생	무직	기타	무응답	전체 (명)
전체 (%)		67 17.0	104 26.5	24 6.1	40 10.2	19 4.8	22 5.6	16 4.1	1 0.3	31 7.9	61 15.5	8 2.0	393 100.0
분석 지역	서울	1.7	26.7	5.0	20.0	8.3	6.7	6.7	0.0	6.7	18.3	0.0	60
	경기	0.0	21.0	8.1	14.5	4.8	3.2	4.8	1.6	12.9	24.2	4.8	62
	대구	4.1	27.0	13.5	4.1	5.4	6.8	5.4	0.0	16.2	16.2	1.4	74
	경북	29.6	35.2	0.0	11.3	5.6	5.6	1.4	0.0	0.0	9.9	1.4	71
	광주	24.1	20.4	11.1	9.3	1.9	9.3	1.9	0.0	9.3	11.1	1.9	54
	전남	40.3	26.4	0.0	4.2	2.8	2.8	4.2	0.0	2.8	13.9	2.8	72

배우자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자의 배우자 직업은 단순 생산직(26.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어업(17.0%), 전문직(10.2%), 무직(7.9%)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아닌 경북, 전남에서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외는 달리 서울, 경기, 대구, 광주에서는 무직이 비율이 경북, 전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직업에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자의 배우자 직업은 농어업, 단순생산직에 종사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이에 비해 중국, 일본 결혼이주자의 배우자는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었다. 배우자의 학력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46.8%), 대학교(25.7%), 중학교(13.5%)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외로 배우자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배우자의 연령은 40대(46.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36.4%), 50대(6.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의 연령이 20~30대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자와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으로 파악된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도는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누락되었으나, 보건복지부(2005)에서 조사한 부부관계 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다. 여

기서 조사한 결혼이민자들의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전반과 '친밀감', '성생활', '가사분담' 등 하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대체로 만족'이 34.3%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이 20.6%, '그저 그렇다'가 28.1%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부관계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3.6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조사대상 여성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중간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관계 7개 하위영역별로는 '부부사이의 친밀감'에 있어서 평균점수가 3.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남편이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3.83점), '부부의 성생활'(3.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부부관계는 전반적으로 친밀하고 서로 신뢰하고 있으며 성관계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부부가 함께 하는 문화생활 정도'는 5점 만점에 3.31점으로 7개 영역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으로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가 형성하게 되는 배우자의 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는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확인된다. 특히 농촌 거주자보다 도시거주자의 고부관계 만족도가 낮았다(여성가족부, 2006). 배우자와의 관계 점수보다 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점은, 한국 문화와 예절을 잘 모르고, 복잡한 친족관계를 잘 몰라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순형(2007)의 연구에서도 시부모와 친인척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자가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하게 되는 관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양육 및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사항으로 나타난다. 본 설문조사 자료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2점 정도의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자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문항인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의 병원진료 등에 대해서는 어렵게 인식하는 경향이 다소 높았다. 그에 비해 자녀의 적응이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거나, 외국인 부모를 싫어한다는 인식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 자녀의 적응은 어렵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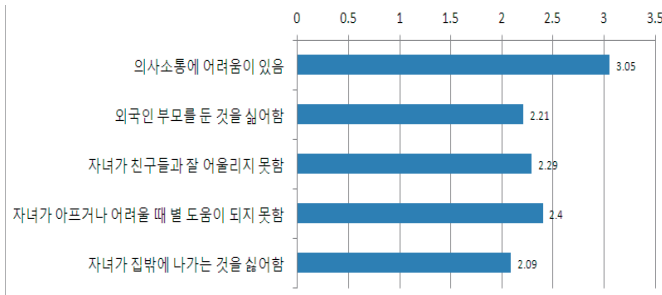


그림 3.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5점 척도값)

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³

심층면접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자가 자녀 양육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사례 3)의 경우처럼 어린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설명을 못하거나, 또는 (사례 4)의 경우처럼 자녀가 본인의 의지나 생활 태도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양국 간의 과거 역사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경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의 사례들에서는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두기 어렵거나 실제 병원 치료나 교육을 적절하게 받도록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우리 애기가 아플 때이다. 애기가 아

3 보건복지부(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자녀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60~70%의 응답자들이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포레집단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보다는 한국말을 쓰는 자녀와 결혼이주자간의 의사소통부분에서의 문제가 그나마 보통의 정도로 확인된다. 이순형(2006)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이 다른 질문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은 결혼이주자가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어 실력이 자녀보다 부족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점이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자녀 교육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의 연구(2006)에서 자녀와의 대화빈도를 조사하였는데 결혼이주자가 배우자보다 조금 더 자주 대화를 하며, 농촌거주자 일수록 도시거주자보다 자녀와 대화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프면 보건소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부족하지만 병원에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아이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이 든다. 그래서 애기한테 미안할 뿐이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는 이들이 많아서 아이들 숙제할 때 도움을 받고 있다. 어린이 집에서 애기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데, 한국말을 배우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 아직까지 애기와 의사소통에 문제점은 없다.”(사례 3_결혼이주자 가정생활에서 자녀와의 관계 - 필리핀, 여 40세, 대구 거주)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 내가 일본인이어서 아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많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너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지 계속 묻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말해보라고 하질 않나, 아이 친구들도 ‘넌 한국 사람이 아냐’, ‘재네 엄마는 일본인이래’, ‘일본사람은 나빠, 그러니까 때리자’ 등 아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걱정된다. 교회에서 한국에 대해 일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알고 있고,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한테도 사람들이 뭐라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나한테는 무슨 말을 하든지 괜찮는데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옛날 일본이 잘못된 사진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시킨다. 그런데 너무 속상하다.”(사례 4_결혼이주자 가정생활에서 자녀와의 관계 - 일본, 여 46세, 경북 거주)

4.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과 사회적 관계

1) 이주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생활

이주노동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공간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주노동자에게 직장생활은 이주 후 정착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직장 공간(즉 일터)은 이중적으로 타자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최병두 외, 2011,

338). 즉 직장 생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자나 관리자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규율의 공간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직장을 가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열악한 노동 조건과 노동 환경을 감수하고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직간접적인 압박이나 폭언, 폭행을 감내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미등록(불법)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희망직종 여부, 노동 업무량의 정도, 임금에 대한 만족도, 직장의 유지 의지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3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 결과는 상대적이며, 때로 응답자의 진실된 응답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예로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한 노동의 업무량은 국내 노동자들에 비해 분명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이 항목에 대해 다른 항목들보다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일단 일정한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직장으로 이주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옮길 생각'에 대해 응답자의 19.3%가 옮길 생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희망직종과 관련한 문항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희망한 직종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 이외에 필리핀인과 비자유형이 연수취업인 경우 본인이 희망한 직종에 보다 많이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 인권연대(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과 업종이 기술을 요하기보다는 단순 노동집약산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숙련도가 높은 경우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본인의 작업성취도와 한국적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허가제 하의 선발과정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기능이나 기술여부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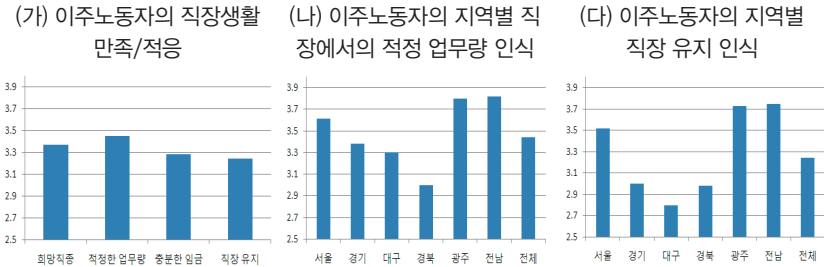


그림 4.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 만족(적응) 정도(5점 척도값)

노동자의 기술과 선호를 고려하지 않은 회사 및 업무배치가 직장 생활에 적응을 어렵게 하여 이탈율을 높이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인식한다.

업무량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48.5%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그림 4-나). 조사를 수행한 6개 지역 중 업무량이 경북지역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가 24.3%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 대구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업무량에 대해 감당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스리랑카 인들은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업무량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사례 5)와 (사례 6)과 같은 심층면접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좋지 않은 편이지만, 임금 수준이 자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견딜만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저는 조선족이고, 경북 의성이 본적이라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은 잘 되는 편하다. 또 문화 차이도 별로 없기에 한국으로 취업을 결정하였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잘 지내는 편이지만 제가 있는 공장은 일 자체가 힘든 편이다. 일이 힘들고, 많아서 인지 여가시간은 없고, 쉬는 날이면 잠자기 바쁘다. 공장에 항상 몸에 안 좋은 가스가 많이 차있기에 건강에 문제는 없을 지 걱정이다. 당연히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지만 본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참고 일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불법체

류자라고 봉급이 적고,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사례 5_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 - 중국, 남 42세, 대구 거주)

“한국에서 직장생활은 먹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서 많이 힘들지만 직장 동료들은 다들 잘해주어서 좋다. 물론 막 시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다. 노동시간은 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만큼 높은 돈을 받기에 만족한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음식도 만족하고, 특별히 일 하면서 위험한 것도 없기에 일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편이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고 싶지 않다.”(사례 6_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 - 몽골, 여 25세, 대구 거주)

물론 설문조사에서 ‘임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0.7%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연구에서도 월 평균 임금이 99.5만원이고 본국에서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원이었다. 이를 한국에서의 임금과 비교하여 보면, 이주 노동자 전체 임금은 본국에서의 임금보다 684.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직 욕구도 더 높게 나타났다.⁴ 특히 대구 지역의 이주 노동자의 36.1%가 이직을 원하고 있었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응답이 높았다.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이주노동자들이 타 유형에 비해 이직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두 유형이 타 유형보다 이직에 있어서 보다 원활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절대시간에 대한 항목에서, 응답자들 가

4 2005년 실시된 ‘고용허가제 실태보고서’에서는 조사에 응답한 이주노동자들의 69%가 사업장 이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동 희망의 주요 이유는 장시간 근로 및 과도한 노동, 낮은 임금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을 이동하고 싶은 욕구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 1회 휴일이 지켜지지 않고, 하루 열 두 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노동, 작업장 내에서의 비인격적 대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운데 약 30% 정도가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은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인의 42.9%가 7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출판인쇄업, 금속 및 비금속가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많게 나타나는데, 각 업종에서 7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각각 44.4%, 40.6%, 그리고 57.1%를 차지하였다. 또한 보다 최근 이주한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간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는데, 2008년 이후 입국한 노동자들의 경우 49%가 7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당 총근로시간은 45.25시간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주당 총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 시간은 55.26시간으로 국내 근로자들보다 주당 10시간 정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에서,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한 조사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44.2%에 달하는 153명이 4개의 보험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현행 외국인력정책에 위배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구할 수가 없다. 4대 보험과 관련한 질문은 중복응답으로 작성되었다. 국민연금은 15.9%, 건강보험은 34.4%, 고용보험은 30.3%, 산재보험은 24.3%만이 가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정책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2007)에서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95.1%와 93.8%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국민연금은 73.4%의 가입률을 보였으며, 고용보험은 상대적으로 다른 보험에 비해 낮은 59.7%의 가입률을 보였다.⁵

5 이러한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고용 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고용허가제 일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97% 수준이고, 건강보험은 이보다 다소 낮은 66%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약 50%만이 적용받고 있다.

2) 이주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들과의 관계는 직장 생활에서 얻게 되는 임금이나 노동조건 자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직장에서 한국인 상사나 동료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한편으로 우선적인 배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사례 6), 때로는 이들을 자신들보다 신분이나 능력이 낮은 계층으로 인식하고, 심지어 폭언이나 폭행으로 억압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활동에서 직장동료와의 친분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서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9.4%나 되었다(그림 5).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인은 타국적 노동자보다 친분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수행 시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산업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 모두 불만족보다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상급자와의 관계에서도 불만족보다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동료와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인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19.9%나 되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이주노동자 수는 2~4명, 10명 이상 순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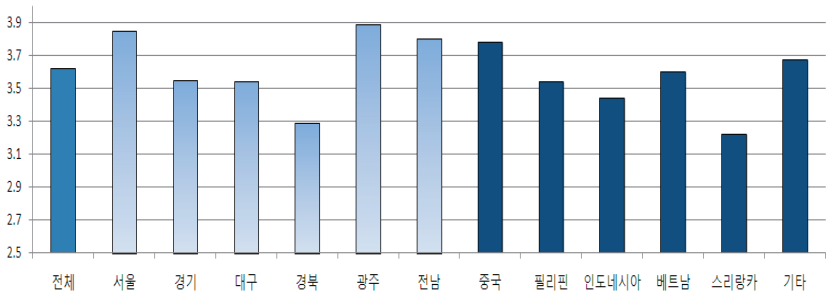


그림 5. 이주노동자의 직장 동료와의 친분 정도(5점 척도 값)

고, 혼자 일하고 있는 경우도 18.2%나 되었다. 지역별로 경북과 광주에서는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은 전체의 88.3%가 4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인도네시아인들의 45.7%가 1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업과 전자전기업종에서 1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수산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58.3%는 자신 혼자 일하고 있었다. 비자유형별로 연수취업의 경우 전체의 61.3%가 4명 이하의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원취업, 비전문취업, 산업연수생 제도 하의 이주노동자의 20% 이상이 1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는 2~4명이 가장 많았고, 4~7명,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18.6%가 10명 이상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았다. 국적별로 인도네시아인의 28.6%가 10명 이상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방문취업에 해당되는 이주노동자는 외국동포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유형보다 더 원만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출신국가의 중복응답에서 한국은 37.3%를 나타냈다. 친하게 지내는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나타난 것은 전체의 39%를 나타낸 중국이었다. 이주노동자의 친구관계를 고찰하면서 한국인과 모국인의 친구관계에서 한국인 친구에 비해 모국인 친구의 수가 더 많고 모국인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는 경향을 보인다(이정환, 2005). 특히 모국인 친구로부터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더 받기도 한다. 또한 체류기간은 한국인 친구관계에 영향을 많이 준다. 즉 체류기간이 길수록 한국인 친구 수도 많고 자주 교류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에 체류기간이 오래될수록 한국 문화 및 언어에 익숙해지며 그만큼 한국인과 접하고 사귄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많아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5. 전문직 이주자의 직장생활과 사회적 관계

1) 전문직 이주자의 직장에서의 생활

전문직 이주자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짧고, 직장이 안정되며 소득도 높기 때문에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처럼 크게 가시화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들의 국제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은 사실상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최병두 외, 2011, 197).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전문직 이주자들의 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적응)도와 사회적 관계를 조사·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전문직 이주자라고 할지라도, 이 유형에는 다양한 세부 유형의 이주자들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유형도 세부적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전문직 이주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한국 소유의 기업이나 기관들(78.9%)’이다. 그러나 기업활동 관련직에 해당하는 D-7(상사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체류자격의 경우 본국기업이나 기관, 또는 자영기업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⁶ 그리고 이들이 직장에서 가지는 직위를 설문한 결과, 설문자의 대부분인 68.8%가 일반사원이라고 답하였다. 비중은 작지만 다음으로 고위관리직(7.0%), 하위관리직(4.3%), 중간관리직(3.9%)의 순이다. 특히 고위관리직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국적별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 위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내의 도시별과 이주자들의 출신국적에 따라 전문직 이주자의 직위가 상이함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문직 이주자들의 소득과 근무시간에 관한

6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한국기업 또는 기관에 취업한 전문직 이주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응답자들 가운데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3000만원, 3000만원~5000만원 등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다.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억 원 이상은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경기 지역의 활발한 기업활동 관련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신국적별로는 필리핀 국적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기업활동 관련직이 많은 중국 국적의 전문직 이주자의 소득은 높다. 비자유형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은 E-6(예술행행)가 가장 많고, 1억 원 이상은 D-9(무역경영), E-3(연구), D-8(기업투자)과 같은 기업관련 활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정책연구에서는 학력별 전문외국인력의 평균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 내국 인력과 비교하여 석사, 박사 수준의 인력 평균 연봉은 전문외국인력의 연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외국인력의 연봉은 석사 3286.9만원, 박사 4075.6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출신국별 임금수준을 비교하고 있었는데 선진국 출신의 전문외국인력의 연봉은 5565.5만원이고, 구 동구권 출신은 2788.6만원, 개발도상국 출신은 2845.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이주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의 36.3%가 40~49시간 근무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9.5%가 30~39시간이라

표 4. 전문직 이주자의 연평균소득

	1000만 원 미만	1000~ 3000만원	3000~ 5000만원	5000~ 7000만원	7000~ 1억원	1억원 이상	무응답	전체
빈도 (%)	8 (3.1)	93 (36.3)	93 (36.3)	18 (7.0)	17 (6.6)	17 (6.6)	10 (3.9)	256 (100)
서울	2.0	23.5	48.0	7.1	12.2	5.1	2.0	98
경기	0.0	14.7	35.3	17.6	8.8	20.6	2.9	34
대구	6.5	65.2	8.7	4.3	2.2	2.2	10.9	46
경북	0.0	91.3	4.3	0.0	0.0	0.0	4.3	23
광주	8.6	22.9	48.6	5.7	2.9	8.6	2.9	35
전남	0.0	30.0	60.0	5.0	0.0	5.0	0.0	20
전체	3.1	36.3	36.3	7.0	6.6	6.6	3.9	256

고 답하였다(표 5). 전문직 이주자들의 이러한 노동시간은 단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직 인력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짧은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0시간 이상 되는 경우도 18.8%를 차지했는데, 특히 경기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인도와 중국을 포함해 특히 러시아인들이 대체적으로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출신의 응답자들은 기업투자(E-8), 회화지도(E-2), 교수(E-1) 등으로 구성되었다. 비자유형별로는 회화지도(E-2)나 예술홍행(E-6) 분야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이 유형들은 고정 시간대의 출퇴근 보다는 근무시간대가 유연적이며, 파트타임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⁷ 종합해 보면, 취업을 전제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전문직 이주자들은 그들의 출신국적과 비자유형(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무환경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양상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 내 도시나 지역별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전문직 이주자들의 직장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57.4%)과 '매우 만족'(19.5%)을 합하면 모두 76.9%의 응답자들이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우 불만'에 해당하는 응답은 0%로(표 2), 전문직 이주자들은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비교적 순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세부적으로 시설의 편리성, 복지제도, 적당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 적절한 임금, 업무수행 능력 인정에 관한 항목에서도 모두 (5점 척도값) 3.5 이상을 보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 생활에서의 세부항목들 가운데, 특히 시설의 편리성(3.98)과 업무시간 및 업무량(3.76)에 대해 만족도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앞서 전문직 이주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일주일 당 40~49시간 이상임을 감안한

7 이규용 외(2005)의 연구에서는 전문외국인력의 주당 근로시간을 학력별로 조사하였다. 학사는 42.3시간, 석사는 40.6시간, 박사는 41.7시간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시간은 내국인의 평균 주당 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전문직 이주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19시간 이하	20~29 시간	30~39 시간	40~49 시간	50~59 시간	60시간 이상	무응답	전체
빈도	27	30	50	93	32	16	8	256
(%)	(10.5)	(11.7)	(19.5)	(36.3)	(12.5)	(6.3)	(3.1)	(100)
미국	12.3	6.2	23.1	46.2	3.1	3.1	6.2	65
캐나다	10.8	32.4	18.9	24.3	10.8	0.0	2.7	37
중국	8.7	4.3	0.0	52.2	21.7	13.0	0.0	23
일본	4.5	4.5	4.5	68.2	13.6	4.5	0.0	22
필리핀	16.7	0.0	58.3	8.3	8.3	0.0	8.3	12
영국	9.1	9.1	45.5	22.7	13.6	0.0	0.0	22
인도	0.0	0.0	20.0	30.0	30.0	10.0	10.0	10
오스트레일리아	6.3	25.0	25.0	18.8	12.5	12.5	0.0	16
러시아	0.0	0.0	16.7	50.0	33.3	0.0	0.0	6
기타	16.3	14.0	7.0	27.9	16.3	16.3	2.3	43

다면 전문직 이주자들은 본인의 근무시간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직장 생활에 대한 세부 만족도를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설문지역 모두 3.0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이 훨씬 더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전문직 이주자들은 ‘시설의 편리성’과 ‘적당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경북지역 응답자의 비자유형은 교수(E-1)와 회화지도(E-2)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보고서에도 직업생활 만족도는 평균 3.97점 정도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직장생활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인간관계, 일 자체, 근무환경 순으로 나타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조직문화와 임금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직 이주자들이 직장에서 대체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심층면접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사례 7) 및 (사례 8)에서 서술된 것처럼, 전문직 이주자들은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임금에 대해서도 스스로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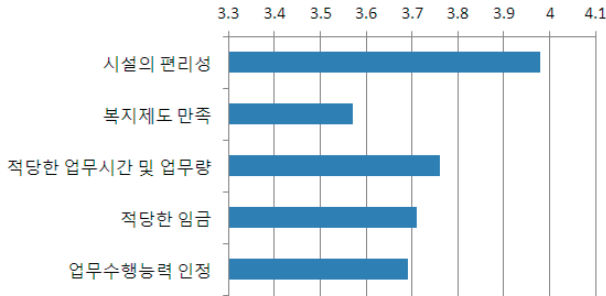


그림 6. 전문직 이주자의 직장생활 만족도(5점 척도값)

“마닐라에서 뮤지션으로 활동을 했었고, 서울에서 1년 정도 싱어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는 좋으며, 노동시간도 만족하고 임금부분에 있어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작업환경이나 부대시설도 호텔이라서 매우 좋다. 무엇보다도 고향에서 싱어로 활동할 때 보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원해주기에 더 좋다. 본국에서의 기대보다 막상 와 보니 현실이 더 좋기에 아직 생각은 없다.” (사례 7_전문직 이주자의 직장생활 - 필리핀, 남 35세, 대구 거주, 연주 공연)

“저는 ○○대학교에서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있다. 직장생활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항상 반겨준다. 교양영어 강사에서 전공영어 강사로 넘어오면서 일이 줄어서 업무량도 만족한다. 처음에는 교양영어의 원어민 강사로 수업을 하여서 일이 많았는데, 영어와 전공 수업과 회화지도를 하면서 많이 편해졌다. 또, 임금부분은 월급여 외에 학교에서 복지비로 한 달에 300만원씩 주기에 만족하고 있다. 전반적인 근무환경은 만족스럽고, 현재 있는 기숙사도 조용하고 부대시설에도 만족한다. 하지만 한국음식은 잘 맞지 않다. 너무 맵고 짜기에, 음식을 물에 씻어 먹기도 한다.” (사례 8_전문직 이주자의 직장생활 - 미국, 여 65세, 경북 거주, 회화

지도)

2) 전문직 이주자의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전문직 이주자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 수와 그들의 국적, 직장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의사소통의 방식 등을 설문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이들은 직장 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 수가 차례대로 '10명 이상' 35.5%, '5~6명' 19.1%, '3~4명'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7-가). 기타 국적을 제외하면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은 10명 이상인 경우가 높고, 필리핀이나 인도는 1~2명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 국적에 따라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수가 차이를 보인다. 비자유형별로는 상사주재(D-7), 기업투자(D-8), 교수(E-1), 회화지도(E-2) 등의 유형이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이주자들이 직장 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출신국가를 복수 응답가능하도록 한 설문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본국 출신이 5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43.6%), 북아메리카(41.9%), 아시아(30.1%) 등의 순이었다. 본국의 동료와 가까이 지내는 경향은 거주지별, 국적별, 체류자격별 등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 본인의 국적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대체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의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주자의 국적이 소수국가일 경우, 직장 내에서 본인 외의 다른 이주자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전문직 이주자들이 동료와의 관계에서 소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표 7-나).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출신국적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결과로 직장 생활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 역시 한국인 동료 44.9%, 본국인 동료 3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인들은 본국인 동료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특히 높았으며, 무역경영이나 교수의 경우 한국인 동료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높았다. 하지만 동료 이외의 상사나 사내 외국인 지원 전문가의 도움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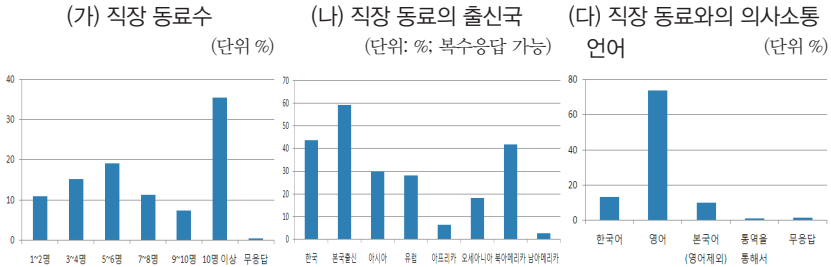


그림 7. 전문직 이주자들의 직장 동료관계

직장에서 의사소통은 영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본국어의 사용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영어권 국가의 이주자들은 영어를 사용하였고, 일본인들은 본국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국적의 설문 응답자 22명 중 한국기업 종사자는 12명, 본국기업 종사자는 8명, 자영업 종사자는 2명으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그림 7.나). 본 연구와 같은 경향으로 직장의 동료로부터 개인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공식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대조적으로 유용한 일상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김남희, 2004). 따라서 전문직 이주자가 전문직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써 타 국가에 이주 온 외국인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한국 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멘토링제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6.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적 관계

1)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에서의 생활

외국인 유학생들은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을 모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수학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들은 최근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주의 특성과 정착 과정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한편, 유형별로 본국에서의 생활수준, 이들의 체류 목적이나 기간, 법적 지위, 향후 본국으로의 귀환 여부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본국에서의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며, 특히 유학하는 학교 내에서의 생활과 만족도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생활과 관련된 세부 항목으로, 대학생활의 행정 기관 및 편의시설의 이용, 대학 내 장학 및 지원제도, 수업 및 학업 만족, 한국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기숙사 수용, 대학 내 교우관계 등에 관한 설문조사하였다. 유학생의 대학 내 주요 활동은 대체로 3.3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활동에 비해 교내 행정기관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그림 7). 이는 국내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이 중국이 다수이며, 이 외의 국가들도 한국보다 생활환경, 경제적 수준이 좋지 못한 개발도상국가 출신의 유학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⁸

대학 내 주요활동 중 장학 및 지원 제도에 대해서 국가 간 다소 차이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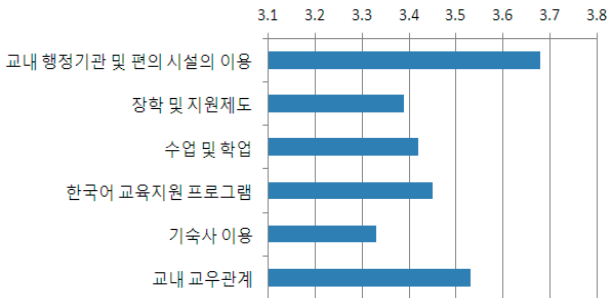


그림 8.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5점 척도값)

었다. 대학 내 주요 활동 중 장학 및 지원 제도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3세계 국가의 유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학생들 중 중국인은 대체로 자비유학의 비율이 높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은 장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 유학생들에 비해 제3세계 국가에 속해있는 유학생은 본국정부, 민간기관, 한국 정부 등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장학 및 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역별로 서울, 대구, 광주 지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 만족도 역시 유학생들의 국적과 관련 있는데, 대체로 서울, 대구, 광주 지역의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이 다양한 편이었다. 특히 국립대학일수록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이 다양하며, 이들은 대체로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낮은 지방대학에서는 자비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로 대학 정원을 확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학 및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장학 및 지원제도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주요 활동의 만족도는 대체로 중국보다는 제 3세계 유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 대학 내 수업 및 학업성취,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기숙사 수용, 교우관계의 조사에서도 중국 유학생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편으로 확인된다.

대학 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조사에서 의사소통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 차별도 14.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대체로 의사소통이 개선 사항으로 우선 지적되고 있으나, 서울은 외국인 차별에 대해 30.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 선진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차별에 1명만이 응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외국인 차별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외국인 차별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국가는 중국으로 19.1%가 외국인 차별에 따른 어려움을 응답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외국인 차별에 따른 고

8 이와 관련하여 손로(2009)는 유학생할 영역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가 본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만족도 수준은 3.29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영역은 전공수업(3.55점), 지식활용도(3.51점), 거주형태(3.35점) 순으로 만족하였다.

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 준다.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내국인 대상의 간단한 의사소통 교육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 중 세 번째로 높은 항목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따라서 내국인들에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도

표 6.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내 행정기관 및 편의시설 개선 희망 사항

	낙후된 시설	외국인 차별	관리자의 불친절	의사소통	기타	무응답	전체 응답자수
전체 (%)	18 (5.0)	52 (14.5)	22 (6.1)	181 (50.6)	78 (21.8)	7 (2.0)	358 (100.0)
서울	7.3	30.9	10.9	29.1	20.0	1.8	55
경기	6.1	10.2	4.1	59.2	20.4	0.0	49
대구	1.8	14.5	3.6	54.5	23.6	1.8	55
경북	6.3	7.6	1.3	49.4	30.4	5.1	79
광주	1.6	14.5	3.2	54.8	25.8	0.0	62
전남	6.9	12.1	15.5	56.9	6.9	1.7	58

표 7.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및 학업 개선 희망 사항

		교수 강의능력	교육과정 적절성	외국인 배려	기자재의 부족	기타	무응답	전체 응답자수
전체 (%)		13 (3.6)	95 (26.5)	148 (41.3)	16 (4.5)	75 (20.9)	11 (3.1)	358 (100.0)
지 역 별	서울	7.3	18.2	58.2	0.0	12.7	3.6	55
	경기	10.2	20.4	36.7	6.1	26.5	0.0	49
	대구	3.6	18.2	49.1	7.3	20.0	1.8	55
	경북	2.5	29.1	30.4	6.3	22.8	8.9	79
	광주	0.0	9.7	56.5	1.6	32.3	0.0	62
	전남	0.0	62.1	20.7	5.2	10.3	1.7	58
과 정 별	어학연수	4.4	24.8	35.8	3.6	24.8	6.6	137
	학사과정	4.5	32.6	39.4	3.8	18.9	0.8	132
	대학원	1.3	19.7	52.6	7.9	17.1	1.3	76

전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수업 및 학업과 관련하여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사항들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1.3%가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교육과정의 적절성이 높은 응답(18.2%)을 보였다. 특별히 전남지역은 외국인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보다 교육과정의 적절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과정별로는 어학연수와 학사과정보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외국인에 한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심층면접에서 (사례 9)와 (사례 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소재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과제 및 발표 준비 등 한국어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시설에 대한 만족 및 외국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사례 11)의 경우처럼, 서울 소재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교육환경, 교수, 시설 등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나, 교내 행정기관의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는 과제, 발표를 준비할 때이다. 학교 내 한국인 친구들과는 처음에는 외국인으로 대하지만 친해지면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한국인 친구들이 처음에는 외국인이지만 외모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생각했다.”(사례 9_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 일본(나고야), 여 24세, 대구지역 대학 유학)

“학교에서 수업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어렵지만 재미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시설은 정말 좋은 편이다. 시험기간이 되면 교수님께서서는 일본어, 영어교과서를 보면서 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다.”(사례 10_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 일본(군마), 여 23세, 대구지역 대학 유학)

“수업에서는 일본에서 배울 수 없는 한국 교수님들의 생각이나 지식, 그리

고 같이 공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다. 그래도 제가 한국말이 안될 때가 많아서 이 점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강의실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데 난방이 안 들어오는 방도 있고 겨울에 매우 춥다. 하지만 주변에 자연이 많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대학의 교수님은 설명하실 때 유학생을 위해서 천천히 해주시고 배려가 많다. 하지만 유학부에 계시는 직원들은 좀 배려가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나는 2학기에 얻을 수 있는 장학금을 4개월이나 그분들이 계속 잊어버려서 못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확인을 해도 연락도 없었다. 아르바이트도 허가 없이 못하는 유학생인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연락도 안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사례 11_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 일본(후쿠오카), 여 37세, 서울 지역 대학 유학)

한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2%가 한국어 교육내용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고, 그 다음은 기타 20.9%, 충분한 교육시간 17.9% 순으로 나타난다. 특별히 광주에 다른 부분의 개선보다는 충분한 교육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6.8%나 차지하였다. 유학생들의 취업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다소 도움이 되는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3.8%, 별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19.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취업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한다고 응답한 지역은 광주, 대구 지역으로 각각 46.8%, 45.5%이고, 취업서비스를 가장 적게 제공하는 지역은 전남지역이다. 교육과정별로 학사과정에서 취업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한다고 응답했다.

2)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에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수업 및 연구 그리고 행정지원과 관련된 대학 교직원들과 관계와 더불어 학습 및 연구 활동 또는 기타 대학 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내 한국인 동료와의 관계는 학습 및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관한 논의나 도움의 요청 등 그 외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학내에서 맺고 있는 한국인 친구에 관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한국인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유학생이 24.0%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대체로 1명 이상의 한국인 친구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1~2명 또는 3~5명의 한국인 친구가 있는 유학생이 다수였다(그림 9가).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지역의 유학생이 한국인 친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⁹

대학 내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해 가장 먼저 상담하는 친구는 대부분 출신국 친구(70.6%)로 확인된다(그림 9나). 입국연도가 오래된 유학생일수록 한국인 친구와의 상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육과정이 고학력에 속하는 유학생일수록, 한국인 친구와의 상담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모국 친구와 문제를 상담(35.2%)한다고 응답한 유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이 한국인 친구로 나타났다.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요 목적을 조사하니 한국어 공부, 취미 여가활동, 수업관련 만남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 중 서울지역은 한국어 공부를 위한 만남보다 수업과 관련한 한국인 친구와의 교류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9다). 전남지역은 한국어 공부의 목적이 압도적으로 높게 차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은 한국어 공부를 위한 친구와의 교류가 53.1%로 나타났으며, 선진국 출신 유학생들은 학내 정보교류를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제3세계국가의 유학생들은 취미 여가활동을 위한 만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한 다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업도움, 한국 친구와 식사 등의 이유로 한국인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손로, 2009).

외국인 유학생의 학내 친구 관계에 관한 심층면접의 결과, 유학생들에게

9 또한 입국 연도가 오랜 유학생일수록 한국인 친구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박은경(2008)의 연구에서도 한국인 친구의 여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입국 연도가 오래될수록 한국인 친구의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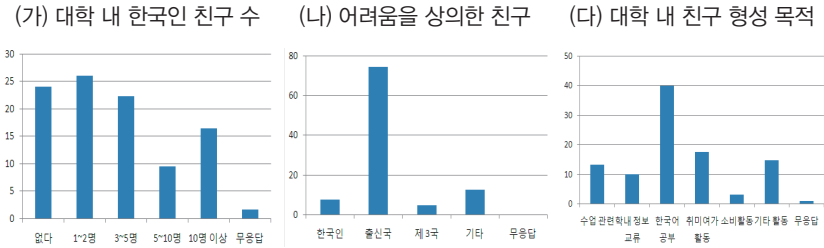


그림 9.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내 친구 관계 (단위: %)

한국인 친구가 적은 이유는 주로 ‘서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 친구들과 조금 더 적극적인 교류를 하는 유학생도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내 외국인 소모임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에 관한 조사에서, 외국인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유학생은 27.4%로 확인된다. 외국인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주 목적은 한국어 공부나 수업 관련모임, 기타 소모임 등이다. 이재모(2008)의 연구에서도 유학생들이 원하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 한국 문화체험, 한국 여행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쉬는 시간이 되면 다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로 떠나가고 수업 시작할 때까지 안 온다. 그래서 학생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원래 교환 학생이 ‘1년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있고 말도 한국사람처럼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친구가 되도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수업이나 학과 모임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든 적도 없다.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사례 12_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 일본(후쿠오카), 여 37세, 서울지역 대학 박사과정)

“한국인 친구가 5~10명 정도 있으며, 학교에서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지만

방학 때는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시내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동아리 친구들이며 저는 현재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사례 13_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 중국(광둥성), 여 28세, 대구지역 대학 학부 3학년)

7. 맺음말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에 따라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이들의 주요 이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 즉 기본생활 공간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은 각기 다르게 표현된다.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면서 외국인 이주자들과 한국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인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별 기본생활공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외국인 이주자의 각 유형별 생활공간은 결혼이주자의 가정, 이주 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의 직장,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에서 형성되는 사회공간을 의미한다. 각 유형별 기본 생활공간에서 활동 및 사회적 관계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자의 가정생활은 의사소통, 집안일 처리, 가족생활 문화 적응,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는 3점 이상의 만족도를 응답하고 있었다. 가정 내 의사소통은 결혼이주자의 입국연도가 오래될수록 용이하였으며, 가족생활 문화의 적응은 국적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특히 일본 결혼이주자의 경우 시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 문화에 어려움을 보였다. 결혼이주자들의 가정생활의 어려움은 주로 배우자와 많이 상의 하고 있었으며, 결혼 초기에는 지원기관과 많이 상담을 하였으나 점차 이용률이 낮아졌다. 결혼이주자들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자녀 양육 문제이다.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였다. 부모의 한

국어가 서툴러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자녀양육을 어렵게 인식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자를 위한 가정생활 적응 지원에 가장 시급한 점은 가족생활 문화의 이해 및 결혼이주자 가족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결혼이주자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자녀양육 및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겠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은 희망직종, 적정한 업무량, 충분한 임금, 직장 유지 등의 활동에서 3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각 문항별 교차분석 결과 국적별, 비자 유형별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구, 경북지역의 업무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이주 노동자가 많았으며 이들은 직장의 이직욕구도 강하게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70시간 이상이 29.5%로 하루 열두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조건은 좋지 않으나 출신국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이 힘들지만 견딜만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사회적 관계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동료와 친분관계가 좋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았다.

셋째, 전문직 이주자의 직장 생활은 시설의 편리성, 복지제도, 업무시간 및 업무량, 임금, 업무수행능력 등의 사항에서 대체로 3.5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이주노동자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내 차별과 편견으로 갈등의 경험을 하였다면 전문직 이주자들은 대체로 근무환경, 시간, 복지제도 등이 만족스러운 경향을 보였다. 직장 내 사회적 관계는 대체로 출신국 동료와 친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한국인 동료가 가장 높은 점으로 보아 전문직 이주자는 한국인과의 관계가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원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은 대학 내 행정기관 및 편의시설, 장학 및 지원제도, 수업 및 학업, 한국어 교육지원, 기숙사 수용, 교우관계 등에서 3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 중 만족도가 다소 낮은 부

분은 기숙사 수용, 장학 및 지원제도로 확인되었다. 장학 및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인의 불만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인의 다수가 자비유학생인 점에 기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중 어려운 점은 대체로 의사소통 문제와 외국인 차별, 외국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 등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지원 중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중점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내 사회적 관계는 한국인 친구보다는 같은 출신국 친구들과의 교류 빈도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 내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은 출신국 친구와 주로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06월 15일 접수, 06월 25일 수정, 06월 27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남모, 2008,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강해순, 1999a, 중국의 여성 가족문제의 현황과 전망,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여성가족생활연구, 4, 3-23.
- 강해순, 1999b, 중·한 섞이혼인 생활의 실태와 전망,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여성가족생활연구, 4, 41-59.
- 고희준, 2005,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무만족도가 기업경영상과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화성시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재호, 2006, 건설업내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59.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 김기홍, 201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기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촌사회, 21(2),

49-102.

- 김남희, 2004, 국내에서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활용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 김남희·한유경·한용진, 2005,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국내 유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3(1), 357-374.
- 김민정, 2011, 필리핀 노동 이주여성의 일과 한국 생활: 미등록 장기체류의 역설, 한국문화인류학, 44(2), 313-358.
- 김민정·이혜경·정기선·유명기,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40(5), 258-300.
- 김보라, 2008, 국제결혼 이민 실태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봉, 2006, 비영어권 교사들의 공동수업 진행 능력에 관한 원어민 교사들의 인식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 2003, 한국 거주 원어민 영어 교사의 실태와 직무만족도 및 한국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33-76.
- 김임득, 2000, 원어민 교강사의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영어교육연구, 12(1), 69-82.
- 김지훈·이민경, 2011,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동기와 경험 연구: 서울 석사과정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동아연구(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61, 73-101.
- 노수인, 200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직무환경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종희 외, 200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국가별·지역별 대학 마케팅 전략, 교육인적자원부.
- 박달순, 2003, 외국인근로자와 한국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반월·시화공간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신혁·전우영, 1998,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직무관련 만족도,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779-786.
- 박은경,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응수·설동훈·강일규·안정근, 2004, 전문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태호, 2000, 대학의 국제화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서영숙·서지영, 2005, 아동 대상 원어민교사의 직무환경만족도 및 한국적응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123-144.
- 서현·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석현호, 1998, 외국인 취업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2(4), 679-701.
- 설동훈 외,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증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윤홍식,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 247-265.
-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로, 2009, 재한 중국인 유학생 한국문화 적응실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 엄혜경, 2003, 국내 외국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5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규용 외, 2005,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 이금연, 2003, 이주와 여성폭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53, 13-16.
- 이명재, 2006,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한 취업연계 장학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미경, 200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 2007, 농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적응문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3-267.
- 이옥정, 1994, 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 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익수·지봉구, 2006, 중국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29(5), 437-454.

- 이재모, 2008, 국내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은, 2010,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인 신부와 지역사회 활동, 중앙민속학(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15, 127-171.
- 이정환, 2005,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사회적관계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실증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7(3), 75-90.
- 이정환·이성용, 2007,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회, 30(2), 147-168.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5,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고용허가제 시행 1년, 그 실태와 개선방향).
- 이주연·김혜숙·신희천·최진아, 2011,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여가생활 변화 인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4), 83-97.
- 이진숙, 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1-42.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 2007, 경기도내 국제 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 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순돌·이현주, 2010, 외국인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8, 5-36.
- 정순돌·이현주·이혜정, 2010,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가 지각하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관계 및 그 영향요인, 한국가족복지학, 29, 29-53.
- 최금혜, 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0(1), 115-138.
- 최병두, 2009,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19-343.
- 최병두, 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 창간호, 1-33.
- 최병두, 2012,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7(1), 13-36.
-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 최병두·신혜란, 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의 지리학: 연구 동향과 주요 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 창간호, 65-97.
- 최병천, 2000, 원어민(Native-Speaker)교사와 한국인 교사 간의 team-teaching을 통한 의

- 사소통능력 향상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한국여성정책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07, 이주 노동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개발원.
- 한국염, 2006, 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대책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한국성폭력상담소, 33-48.
- 허춘영·김광일·이장한, 199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정신건강연구, 18, 107-133.
- 홍기혜, 2000, 중국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17, 329-330.
- 황해연, 2007, 재한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aily Activities and Social Relationship of Foreign Immigrants in Basic Activity Space

Byung-Doo Choi* · Eun-Kyoung Park**

Abstract Foreign immigrants have carried out their international migration under a structural and global context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disparity between countries, and of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done such a career activity in order to realize their life-long aims. And hence, they are very keen to daily activities (and satisfaction) and social relationship in what can be called 'basic activity spaces' where they try to realize their aims of international migration: home space for marriage immigrants, workplace for simple or professional immigrant workers, and university campus for foreign students. This paper is to understand foreign immigrants' daily activities and social relationship in such a basic space, analyzing data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s.

Keywords foreign immigrants, basic activity space, foreign immigrants' daily life in home, workplace, and university campus, social relationship of foreign immigrants

* Daegu University, Professor, Geography, bdchoi@daegu.ac.kr (corresponding author)

** Daegu Kyung-il Middle School Teacher, Geography, shine0924@paran.com